

바다에 버리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보관이 답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오늘 방류하면 그 대가는 내일의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한 목소리를 괴담으로 치부하지 말고,
일본의 무책임한 해양투기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오염수 처리 설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희석하는 방식에 불과합니다. 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를 거쳤음에도 70%에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나마 삼중수소와 탄소-14와 같은 일부 물질은 ALPS로도 처리하지 못합니다.

진짜 문제는 생물축적입니다

일부 학자와 정치인들은 '마실 수 있다'며 안전성을 장담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먹이사슬에 의한 해양생태계 내 축적입니다. 이미 기존의 유출만으로도 농어 등 수산물에서 세슘 축적이 확인된 바 있고,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인체 영향은 제대로 연구되지도 않았습니다.

방류보다 나은 대안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여러 다른 대안들을 권고해 왔습니다. 새로운 저장 시설에 장기 보관하는 방법, 시멘트와 섞어 고형화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비용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가장 위험한 해양투기만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야 막을 수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나서서 국제 해양재판소에 제소를 한다면, 그 심리가 이뤄지는 동안 일본은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수 없습니다. 또한 일본의 방류설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중단시킬 방법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부는 이러한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 방사성오염수 고도해도
해양투기 저지 0000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